

2020년 11월 29일 “아브라함 이야기(12) 그런 줄 알면서도 믿은 생명”(창 21:31-34)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의 정의와 특징을 간단히 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부터 단세포의 생명에 이르는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있고, 생명의 힘의 기원을 생각하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면서 인간에게는 더 깊은 의미의 생명을 말해줍니다. 약속의 생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생명의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의 생명

사람의 생명에서 육신적, 정신적, 영적 요소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명의 한계를 말할 때 육신에 한정됩니다. 제한된 생명의 기간, 늙으면 생명 생산이 불가능함, 육신의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함, 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한계를 고려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75 세라도 나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선 100 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하였고,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 엘리에셀(15 장)이나 이스마엘(18 장)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한계를 전제한 계획이었는데, 이 전제가 깨졌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초월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았을 때, 그는 생명의 기원과 신비를 보았으며, 이삭의 생명이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2] 생명의 역사는 창조의 회복

아브라함은 100 세에 얻은 이삭을 상속자로 지명하면서 큰 만족과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자신은 그 뜻 안으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되면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쉽게 내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힘이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의미를 담은 삶을 기념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예배한 것입니다. 에셀 나무는 생명이 길고, 큰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삭을 낳고 주변과 화평조약을 맺으면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 사건은 창조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창조 전,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낳는 출생 체계의 질서와 기능을 잃은 혼돈과 공허와 같은 상태 속에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낳은 것은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창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롬 4:17-22 을 보면 "... 그는 나이가 백 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깨지고, 또 깨져서 회복 불가능인 줄 알면서도,
 중독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음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잘못을 품고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좌절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이런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약속된 새로운 생명 차원이 열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창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창조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취로 들어와 새생명의 세계를 아브라함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깨짐과 바닥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조 회복의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아들 주실 것을 믿은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롬 4:17-22** 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을 볼 때, 나의 지금 현실 속에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새 차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